



동북일보

강북구의회 신년 시무식, 소통과 화합의 의정활동 시작

창조적인 변화에 부응하고 소통하는 개방적 議會文化 조성

강북구의회(의장 유근성)는 지난 3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14명 의원 전원과 의회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시무식 행사를 갖고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유근성 강북구의회의장은 신년사에서 "신묘년 토끼해를 맞이하여 토끼의 총명으로 위기를 기회로, 역경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 새롭게 도약하는 새해를 만들고 기존의 정치에서 탈피하여 창조적인 변화에 부응하고 소통하는 개방적 의회문화를 만들자"면서 "혼자 걸으면 길이 되고 여럿이 함께 걸으면 역사가 된다고 한다. 우리 모두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의 목소리가 되어 의정사에 빛나는 역사를 창출하자. 또 소통과 화합을 의회의 좌표로 삼아 웃음과 활력이 넘치는 소중한 의회로 만들자"고 하면서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늦은 밤까지 의회청사에서 불을 밝히고 의정 현안에 대해 연구, 공부하는 등 '선진의회상'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의원들과 이를 보좌하기 위해 熱誠(열성)을 다하는 의회 사무국장과 직원들이 신년하례 악수를 통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감의 정을 나누었다. 강북구의회의원 모두



▲2011년 시무식에서 서로 격려의 악수를 나누는 의원들과 직원들

는 2011년도에도 '바른 의정, 열린 의정'을 실천하는 강북구의회를 의정목표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

는 강북구회의 향해사가 될 것을 다짐하며 힘찬 의정활동의 뜻을 올렸다.

(최동수기자 ccdsoo12000@hanmail.net)

동북일보

서울시의회에서 수유배수지 신설 예산 전액삭감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더파인트리와 발맞춰 공사하기 어려워

강북구가 우이동 더파인트리 측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수유배수지 신설 공사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 가운데 수유배수지 관련예산은 원래 58억6천만원이었으나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38억6천만원을 감액시켜 20억원으로 조정했고, 이를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는 구립 30일 열린 제2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유배수지 신설 예산은 누락된 가운데 201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가 올해 더파인트리 조성 공사와 함께 진행하기로 한 수유배수지 신설공사는 한 톨의 사업예산을 받을 수 없게 돼 공사를 하기 어려워졌다.

그러나, 더파인트리 측의 급수공급을 위한 시설로 보고 수유배수지 반대운동을 펼쳐온 북한산초호화콘도건설중단촉구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일웅, 이하 대책위)에서는 반기는 분위기다. 대책위는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지

역사회에서 두 달여 동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수유배수지 신설 예산이 지난 해 12월 30일 통과된 2011년 서울시 예산에서 전액삭감 결정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대책위는 지난 해 11월 23일과 12월 15일 강북구의회 앞에서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고 수유배수지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또 12월 23일에는 아침 일찍부터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유배수지 신설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강북구의회는 강북구가 더파인트리 측으로부터 수유배수지 부지를 기부채납 받기로 한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몇 차례 보류 끝에 지난 해 12월 15일 가사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당시 진보신당의 최선 의원과 민노당의 구본승 의원이 반대를 표했으며, 민주당의 박문수 의원은 기권한 가운데 나머지 11명의 의원들이 찬성했었다.

대책위는 "수유배수지 신설 예

산이 서울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해당 부지를 기부채납 받은 강북구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며 "기부채납 안건에 동의한 강북구의원들도 유례없는 강북구청의 삽질행정에 동참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강북구의원들이 이 제라도 각성하고 인허가 절차, 사업추진 방식, 사업 효과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는 '콘도미니엄을 빙자한 부동산 개발사업' 더파인트리 콘도 건설에 대한 필요한 검토와 진지한 대안논의에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유배수지의 신설에 공감하는 지역 출신의 신승호 서울시의원(민주당·강북3)은 해당 상임위가 아니어서 관여하지는 못했지만 예결위가 전액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내가 미리알았으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설득했을 것"이라며 "상임위에서 30여 억원을 삭감한 것도 아쉬운데 남은 20억원마저 삭감한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금연 기자 / 2011년 1월 지하철이나 집근처 도서관에서 관내 공공도서관의 책을 자유롭게 대출, 반납 할 수 있는 U-도서관이 강북구에서 본격 가동된다. 강북구는 U-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하고 5일 오후 2시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유역 3번출구 방향 무인대출반납기 앞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박겸수 강북구청장을 비롯해 서울시의원, 강북구의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수유역장,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추진 경과 보고와 인사말, 축사, 테이프 커팅, 시연 설명 및 참석 내빈 시연의 순으로 40여분 동안 진행됐다.

U-도서관은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각각의 도서관을 통합해 집에서 가까운 도서관이나 지하철역 등에서 전체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대출 및 반납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강북구는 관내 3곳의 지하철역(수유, 미아, 미아삼거리)과 4곳의 공공도서관(강북, 솔샘, 송중, 수유)에 구축을 완료했다. 또한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스마트폰으로도 손쉽게 도서 검색 및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하철 예약 대출은 강북문화정보센터 등 강북구 공

강북, U-도서관 '스타트'

시연회 성황... 3월부터 시스템 확대

공도서관 회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홈페이지 (<http://www.gangbuklib.seoul.kr>)에 접

속해 대출 신청 → 지하철 예약 → 책을 받는 지하철역을 지정, 신청하면 지정된 지하철역의 예약대출기에서 책을 받을 수 있다.

배송기간은 평균 1일 정도가 소요되며, 배송 완료 여부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예약대출기 이용시 회원카드를 지참해야한다. 반납 또한 예약대출기 옆에 비치된 자가 반납기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지하철 예약대출기는 현재 수유역 3번 출구 방향, 미아역 2번출구 방향, 미아삼거리역 1번 출구 방향에 설치되어 있다.

상호대차 서비스도 같은 방식으로 이용가능하다. 한편 구는 올해 3월부터는 14개 동 새마을문고까지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겸수 구청장은 "U-도서관이 구축되어 주민들이 지하철이나 집근처에서 편하게 책을 접하고 읽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U-도서관을 확대하고 풀뿌리 도서관을 조성해 책읽는 강북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U-도서관 시스템' 시연회 개최

강북, 수유역 3번출구 방향 무인대출반납기 앞서



강북구는 U-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5일 시연회를 개최했다.

수유역 3번출구 방향 무인대출반납기 앞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박겸수 구청장, 서울시의원, 강북구의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수유역장,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추진 경과 보고, 인사말, 축사, 테이프 커팅, 시연 설명 및 참석내빈 시연의 순으로 진행했다.

U-도서관은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각각의 도서관을 통합해 집에서 가까운 도서관이나 지하철역 등에서 전체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대출 및 반납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는 관내 3곳의 지하철역(수유, 미아, 미아삼거리)과 4곳의 공공도서관(강북, 솔샘, 송중, 수유)에 구축했다.

또한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스마트폰으로도 손쉽게 도서 검색 및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겸수 구청장은 "U-도서관이 구축되어 주민들이 지하철이나 집근처에서 편하게 책을 접하고 읽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U-도서관을 확대하고 풀뿌리 도서관을 조성해 책읽는 강북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영수기자

yschoi@shinailbo.co.kr